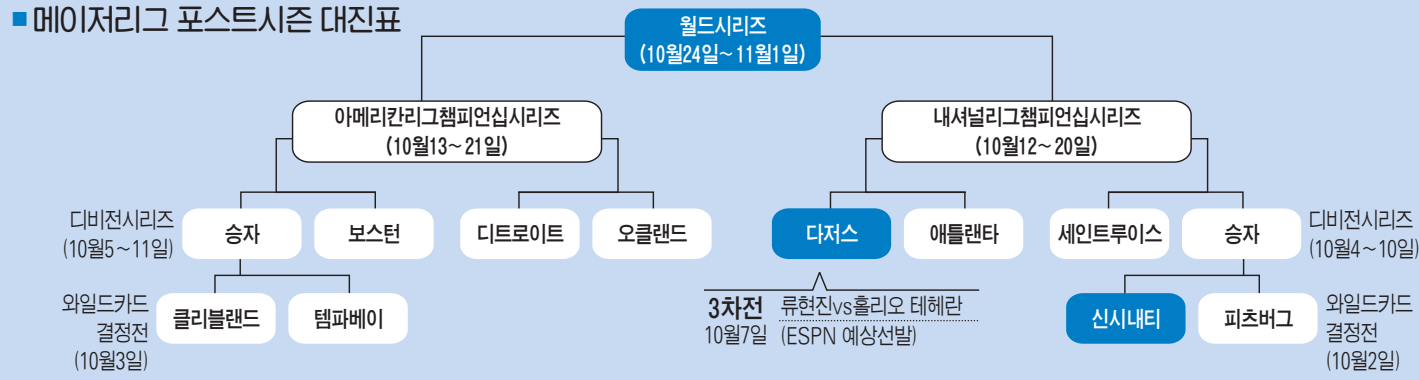


MLB 흥든 코리안 빅리거 “이젠 가을잔치”



류현진
2013시즌 최종 성적
• 승리 141(10/17)
• 평균자책점 3.00(8/13)
• 이닝 192(25/47)
• 탈삼진 154(26/49)
• 퀄리타티티브 22(8/16)
• 피안타율 0.251(25/45)
※(인은 순위(내셔널리그/메이저리그))

■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대진표



추신수
2013시즌 최종 성적
• 경기 154(18/43)
• 타율 0.285(22/44)
• 홈런 21(23/53)
• 홈런맞는 볼 26(1/1)
• 도루 20(16/35)
• 득점 107(2/3)
• 출루율 0.423(2/4)
※(인은 순위(내셔널리그/메이저리그))



류현진

“나가면 꼭 이기겠다”

4일부터 디비전시리즈

3차전 선발 승리 기대

포스트 시즌 출격을 앞둔 ‘코리안 빅리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신시내티 레즈)가 필승 의지를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일주일 동안 (디비전시리즈 상대) 애들한테 대해 연구 많이 하겠다.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오르겠다”며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 진출 첫해 큰 무대를 밟게 된 류현진은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내가 안 던져도 첫 경기 시작하면 긴장할 것 같다. 긴장감을

을 얼마나 떨쳐내느냐가 내가 던지는 날 번수가 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LA다저스는 4일부터 동부지구 우승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를 치른다. 류현진은 3차전을 책임질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아직 다저스가 포스트시즌 선발투수를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3차전에서는 류현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6년째 만에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는 호타준족 추신수에게도 가을 잔치를 맞는 소망은 남다르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는 1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2일 오전 9시)을 앞둔 추신수의 각오를 전했다. 추신수는 “경기 직전이나 경기 중에서도 포스트시즌 특유의 약간 다른 분위기를 실감할지 몰라도 지금은 보통 정규리그를 치를 때와 똑같은 기분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즌 후 FA(자유계약)시장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뿔 것으로 예상되는 추신수지만 일단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신수는 “장밋빛 미래보다 현재 팀에

이바지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플레이오프가 아닌 월드시리즈에 나서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MLB닷컴은 올해 신시내티의 공격 침범으로 맹활약한 추신수를 조명하고 생애 처음으로 가을 잔치에 출전하는 그의 타격 성적에 따라 포스트시즌에서 신시내티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 시즌 타율 0.285, 출루율 0.423, 홈런 21개, 2루타 34방, 54타점을 올린 추신수가 정규리그에서만큼 포스트시즌에서도 맹타를 터뜨린다면 신시내티가 좋은 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목표는 월드시리즈”

오늘 와일드 카드 결정전

툭타자로 승리 견인



강력한 태클을 뚫어라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세인트츠와 미프로풋볼(NFL) 원정 경기에서,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 라이언 태너힐(왼쪽)이 스크리미지 라인 뒤쪽에서 상대 디펜시브엔드 카메론 조던(아래)의 태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무등경기장 시대 막 내린다



2일 SK·3일 두산·4일 넥센전... 2013시즌 마침표

‘추락한 우승 후보’ 마지막 자존심 7위 사수 관심

‘호랑이 군단’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2013시즌 마지막 일정을 치른다. 2일 SK 와이번스를 상대하는 KIA는 3일 두산 베어스 그리고 4일 넥센 히어로즈와 경기를 갖고 2013시즌에 마침표를 찍는다. 2년 연속 포스트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번 홈 3연전을 끝으로 32년간의 무등경기장 시대도 막이 내린다. 마지막 자존심인 7위를 지키고 2014시즌 희망을 보여야 하는 3연전. 자존심과 기록을 위해 ‘호랑이 군단’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KIA는 후반기 연패를 거듭하면서 8위까지 추락했다. 신생팀 NC에게까지 달미를 잡으며 자존심을 구겼던 KIA는 9월 마지막 날 맞대결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다. 그렇다고 7위를 굳힌 것은 아니다. 남은 3

경기 결과 따라서 ‘추락한 우승후보’ KIA와 ‘막내’ NC의 자리가 결정된다. 4강 진출 팀의 치열한 순위싸움 만큼이나 치열한 7위 싸움이다. 두산과 넥센도 마지막 순위싸움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시즌 최종전까지 유례없는 험겨투기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 타석 한 타석, 공 하나 하나가 아쉬운 선수들도 있다. 개인 기록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남아있다. 팀의 4번 타자로 우뚝 선 나지완은 100타점에 4개를 남겨놓고 있다. 개인의 첫 100타점이기도 하고 프로야구계에 당당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2년 연속 MVP를 꿰뚫은 넥센 박병호만 9개 구단 타자중 유일하게 100타점 고지를 넘었다. 올 시즌 200홈런과 2000루타 등을 채운 이병호는 700타점도 준비하고 있다. 3경기

에 6타점을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최근 홈런 페이스를 보면 불가능한 기록은 아니다. 팀의 유일한 3할 타자 신중길은 생애 첫 3할을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0.31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신중길은 남은 경기에서 15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더라도 3할 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10승 투수를 배출하지 못한 마운드에서도 마지막 도전이 이뤄진다. 양현종·김진우·소사가 9승 문턱에서 번번이 실패를 기록했다. 양현종에게는 선발의 기회가 돌아갈 예정이다. 양선 SK와의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부활투를 뿌렸던 양현종이 10승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진우와 소사에게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마무리 시험가동중인 김진우는 승패가 걸린 상황에서 등판을 할 수도 있다. 소사도 불펜으로 출격할 수 있는 만큼 10승 가능성은 남겨졌다. 한편 3일 두산과의 경기는 공중과 중계로 인해 오후 2시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려한 피날레 꿈꿨는데...

화려한 피날레를 꿈꿨던 KIA가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호랑이 군단’의 2013시즌의 구상은 무등경기장에서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과 타이거즈 왕조 재건이었다. 올 시즌에는 특별한 의미도 있었다. 새 구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2013년은 무등경기장에서의 마지막 해다. 많은 이들은 V10을 이룬 역사의 현장에서 ‘전설’들이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내길 기대했었다. 올 시즌은 타이거즈 역사에 전환점을 찍은 해이기도 하다. KIA는 2009년 우승 기세를 몰아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 관리와 투자를 위한 전용구장 건립 작업, 지난 9월 마침내 함평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완공됐다. 타구단의 부러움을 산 2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다. 투자는 또 있었다. 역대 최대규모의 마무리 캠프단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KIA는 과열양상을 보인 FA

전용구장 건립에 FA 50억 배팅
타이거즈 왕조 재건 노렸지만...
끝없는 성적 추락... 팬들 외면
챔피언스필드 조용한 개장식
무등경기장 고별전도 고심
대규모 투자한 구단 병어리 냉가슴

다. 모기업 임원진들도 조용히 현장을 다녀갔다. 무등경기장에서의 마지막 경기에 팬들을 불러모으는 것도 일이 됐다. 끝없는 추락과 함께 관중수가 급감한 탓이다. 지난 볼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매진 사례를 장식했던 KIA지만 가을 관중석은 쓸쓸했다. 지난 25일 롯데전 관중수는 1182명까지 폭 떨어졌다. 결국 무등경기장 고별전을 위해 티켓 ‘1+1’ 프로모션까지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교육리그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KIA는 지난날 홈세완 코치를 필두로 박준표·이대삼(이상 투수), 고영우·박찬서(이상 야수)를 미국 플로리다로 보냈다. 오는 10일까지 KIA의 교육리그가 진행되지만 구단 안팎이 시끌시끌하면서 이렇다할 소식도 알리지 못했다. 화려해야 했던 KIA의 2013시즌이 유례없는 추락으로 쓸쓸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장에서 50억원을 배팅하며 김주찬을 영입했다. 하지만 투박의 성적에 구단은 공공 가슴을 앓았다. 초반 질주가 이어졌더라면 대대적인 챔피언스필드 개장식이 열렸을지도 모르지만 뒤늦게 구단 분위기가 추락하면서 행사를 통해서만 개장 소식을 알렸